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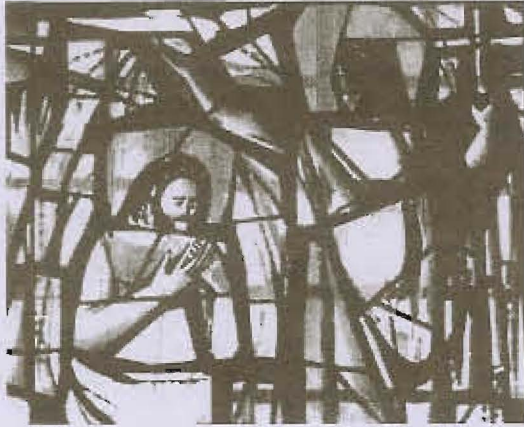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제31권 2호(가해) 2010-12-5

[묵상]



예수님의 세례
<유리화, 1965년, 성 아고스티노성당, 이탈리아>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이,
그분의 길을 끝까지 내는 이,
광야에서 들려오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

하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미치는 나라,
누구도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
용서가 모든 죄와 악을 극복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해방의 나라.

회개.
인간과 하늘 나라를 연결하는 통로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로우시게
주님의 길을 끝까지 마련하는 회개는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방법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결단.

세례자 요한이 외친 심판의 선포를
구원의 선포로 바꾸는 회개를 통하여
가까이 왔다고 선포된 하늘 나라가
지금 여기이기 때문이다. - 桓 -

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병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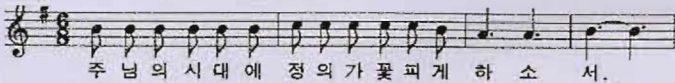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홍관 요셉, 연옥영혼들
특전미사	(생)케네스 안드레아 해밀튼 & 한혜숙 루시아, 서현수, 박수정, 이상용, 박윤희, 나혁구, 이성연, 정예진
주 일 낮 미사	(연)이은완 야고보, 이현호 요한, 김종환 야고보, 최복동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엄은섭 도로테오,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생)엄영숙 마리아, 이진행 힐라리오 & 정선 비비안나, 이재용 안드레아 & 혜선 안젤라 가정, 한길미아 베로니카, 이운조 글라라, 김성택 프란치스코, 변해경 올리안나, 토런스 북구역 가족, 나정숙 세실리아, 주용범 아브라함, 이인석 비오 & 이진원 루시아 가정, 정학순 발바라, 송호민 & 김나영 가정, 박제시카 마리아, 김현 니콜라스, 김풍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가정,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 & 아네스 가정, 이덕철 루카 & 비비안나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11,1-10

화답송 ○주님의 시대에 정의가 꽃피게 하소서.
큰 평화가 영원히 꽃피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들,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들을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5,4-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3,1-12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24	123
봉헌	364	231
성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307
파견	125	129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안락사의 비극

엄밀한 의미의 안락사란 모든 고통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야기시키는 작위 또는 부작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락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의향과 사용된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안락사는 이른바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것과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상되는 어떠한 결과에도 부적절하거나 또는 환자나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환자가 처한 실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의학적 치료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죽음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양심 안에서 "비슷한 경우의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상적인 간호를 중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결과가 불확실하고 큰 부담이 되는 생명의 연장박에 보장하지 못하는 종류의 치료행위들을 거부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아야 하고, 자신을 남들이 돌보도록 허락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의무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용 가능한 치료 방법들이, 호전될 가망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나 안락사와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표현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통증 완화 치료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방법은 병의 말기 단계 고통을 더 견딜 만하게 만들고,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함께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종류의 진통제나 진정제들이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맑은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라면 의식적으로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진통제에 의한 치료를 그만둬으로써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다면, 그것은 마땅히 칭찬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웅적인" 행동을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다. 비오 12세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비록 의식이 흐려지고 생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마약류를 사용해서 고통을 없애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셨다. 이런 경우에 사람이 합당한 동기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죽음을 의도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단지 의사가 제공하는 진통제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바람밖에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이유 없이, 죽어 가는 사람의 의식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속)

주님 어서 오소서

대림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공동체는 첫째 독서로 이사야 예언서 1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자신이 환시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 노래하는데, 그 왕국의 묘사에 앞서 예언자는 우선 그가 누구인가를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선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햇순, 즉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임금의 혈통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적통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2절에서는 그 메시아에게 “주님(야훼)의 영”이 머무른다고 말하면서, 그 영의 속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속성은 모두 6가지인데, 지혜(sapientia), 슬기(intellectus), 경륜(consilium), 용맹(fortitudo), 지식(scientia) 그리고 경외(timor)입니다. 여기에 효경(pietas)이 더해지면 성령칠은이 됩니다.

3절에서는 2절의 마지막인 “경외”에 대해 반복하여 언급하면서, 메시아는 하느님을 경외하기에 자기의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즉 자신의 편의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3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4-5절은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강한 자들과 타협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무죄배를 내리치고” 악인을 처벌하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6절부터 등장하는 대목은 진정 경이로운 묘사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의와 함께 “늑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찌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물고” 다닐 것이며,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는... 그런 정의로움이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자는 선언합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의가 단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

를 뛰어넘어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됨을 의미하며, 하느님의 정의로움이 단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세상의 관계에서도 역시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그 경이로운 정의로움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을 앎”이라고 예언자는 밝힙니다. 여기서 이사야 11장이 전하는 메시아의 본질적 정체가 드러납니다. 메시아는 바로 “하느님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정의로운 하느님 나라에서(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겨레와 온 우주가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일종의 영광송과 함께 오늘의 독서는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독서를 거꾸로 읽으며 요약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명제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로움에 기초하며, 참다운 정의는 공의로움 하느님에 대한 앎에서 출발하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영을 통해서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메시아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공동체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세상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도 또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문서의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변합니다. 그것이 오늘 대림 2주를 맞으며 우리 온 교회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계셨던 메시아를 그리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까닭이겠습니까. 마라나타(주님 어서 오소서)!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 성서신학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순길 세실리아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대림 시기 ✦

오늘 우리는 두번째 대림초를 켜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오실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 ◆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 8일(수) 오후 7시30분
-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21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 중 미사전후에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낮시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보속 : ㉠마태오복음서 통독 ㉡선행1회 ㉢주모경 기도 중 두가지 선택
- ◆ 본당 신부님 판공출장 관제로 평일미사 시간 변경
 - 15일(수), 16일(목), 22일(수) : 오전 8시30분 아침미사
- ◆ 성탄 밤미사 : 24일(금) 오후 9시
- ◆ 성탄 대축일미사 : 25일(토) 오전 11시(특전미사: 7시pm)
- ◆ 송년미사 및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 12월31일(금) 밤11시30분
 - * 24일/31일(금) : 아침 평일미사 없습니다.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1월1일(토) 오전 11시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없습니다. 특전미사 : 7시pm)
- ◆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오늘(4/5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교우들께선 따로 마련된 봉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요셉회에서 점심 무료 대접

요셉회가 본당 교우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오늘 주일(5일) 낮미사 후 맛있는 짜장밥을 전신자들에게 무료로 대접합니다.
- ◆ 전신자 대상 대림 특강 II
 - 일시 : 오늘 주일(5일) 오후 1시 성전

- 강사 : 이장환 마르띠노 신부님
- 내용 : 성경반 개설 앞두고 성서 전반에 관한 강의

◆ 배론 청년회 대림 피정

- 일시 : 12월10일(금) 오후 7시~11일(토) 오후 8시
- 장소 : 성당 강당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 백삼위 골프회 송년 토너먼트

- 일시 : 12월11일(토) 오전 9시20분
- 장소 : 롱비치 Recreation Park 골프코스
- 문의 : 정충로 안토니오 골프회장 ☎(310)323-8100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 새로 개정된 메디케어 & 메디칼 건강플랜 설명회

- 2011년에 새로 개정되는 Medicare & Medical 건강플랜 설명회. 질의응답을 통해 새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보험전문가)
- 일시·장소 : 12월12일(주일)오후 1시, 강당
 - 내용 : 65세이상 은퇴자, 노약자, 장애인 대상
 - 주관 : 남가주 한인가톨릭 장애인복지회
 - 연락처 : 노장오 요셉 회장 ☎(213)387-3301, 조면식 바르톨로메오 총무 ☎(213)479-0066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장소 : 12월12일(주일) 오후 3시, 성당
- 레지오 활동단원, 협조단원과 관심있는 교우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기 바랍니다.

◆ 성탄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12월19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백삼위 올드레아 송년모임

- 일시 : 오늘 주일(5일) 오후 5시,
- 장소 : 송근섭 발렌티노 님 자택 (6937 Kings Harbor Dr. RPV) ☎(310)377-0727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5일(주일) : 요셉회(짜장밥 \$무료)
- 12월12일(주일) : 하버/카슨(설렁탕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 은 오수인 이정태 정상문 허정자	강인모 김재연 오일순 이영숙 정상봉 황지영	강태홍 노새미 오 진 이인석 주대중	김낙기 박종열 오진희 이재용 지경수	김병조 신대식 오현희 이현주 최진수	김옥보 양영관 육근주 임한나 한금순
합계 : \$4,650						
미사헌금 : \$3,065						
성전헌금	강인모 신대식 이영숙 정상문	강태홍 양영관 이인석 정상봉	김낙기 오수인 이일길 주대중	김병조 오진희 이재용 최진수	김옥보 오현희 이현주 한금순	노새미 이경태 임한나 황지영
합계 : \$2,680						
감사헌금 : 이인석						재활용 : \$90.89

◆ 백삼위 자모회 소식

- 기금마련 판매행사 : 12월4일 특전, 5일 주일미사후
품목 :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
* 문의 : 윤은경 미카엘라 자모회장 ☎(323)717-4937
- 한국학교도 작은 선물코너를 개설합니다.
- 주일학교 미사시간 지키기 티켓 상품교환 행사 :
오늘 주일(5일) 수업 후 점심시간 천교장,
그동안 받은 'Early Bird Ticket'을 꼭 가져오세요.

◆ 주일학교 성탄제

- 일시 : 12월18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 대상 : 유치부~12학년
-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6일/1월2일 두주일, 수업 없습니다.

◆ 배론 청년회 회원 모집

"평범한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는~데~"

- 청년이세요?
-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백삼위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 배론 청년회 미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합시다.
-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박소영 프란체스카 부회장 ☎(323)313-7255

남가주 소식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봉헌 및 봉헌갱신미사

- 일시 : 12월7일(화) 오후 7시
- 장소 : LA성 바실 한인천주교회(킹슬리본당)
- 대상 : 전신자
- 준비물 : 묵주와 가톨릭 성가집
- 주최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미주평의회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8일(토) 오후 6시
- 장소 : Double Tree 호텔(13111 Sycamore Dr, Norwalk)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 대표부부 ☎(310) 347-1665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2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	--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2/10(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2/11(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2/10(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18(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미카엘 316-7608 12/11(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진숙 로사 543-9051 12/13(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최옥희 테레사 423-9075 12/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김행선 올리아나 972-9193 12/8(수) 오전 1030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김희연 루시아 750-4051 12/11(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상 바오로 780-9055 12/26(일)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서창호 바오로 968-1344 12/17(금)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2/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2/10(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2/14(화) 오전 10시30분

대림 시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되풀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의미를 그 시간 속에 부여합니다.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하며, 그분이 겪으셨던 수난과 죽음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1년 중 가장 중요한 부활을 기념합니다. 교회는 전례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림시기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은총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래서 더욱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나누려는 성탄축제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 그 자체여야 되죠. 미사 참례하는 것도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에서 우리나라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4세기경부터 성탄축일을 12월25일로 정해 지키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로서,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 동안이며, 대림 1주일은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대림의 첫날은 성 안드레아 축일(11월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어두운 죄중에서 살아오던 인류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회개하는 시기이므로 사순시기와 같이 근엄하게 지내며 축제를 지내는 관습도 지양됩니다. 사제는 자주빛 제의를 입으며 '로마전례서'에 의해 대영광송이 미사 중에 생략됩니다. 대림시기는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2천 년 전의 예수 탄생을 재현하는 기다림입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대림 4주간 동안 사람이 되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이 시기에 사용하는 4개의 대림초는 구원의 4천 년을 상징합니다. 매주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천 년의 세월속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갈망했던 믿음의 역사를 깊이 묵상합니다. 둘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영광스런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전례는 화려함을 피하고, 사제는 속죄의 의미로 자색 제의를 입습니다. 신자들은 관공성사를 보며 진실히 참회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셋째, 성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특히 성체성사를 통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1).

☞ 예수성탄대축일 밤미사, 성탄절 낮미사, 주일미사에 모두 참례하러니 힘이 듭니다.

새로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리는

관습이 서방교회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자는 모르죠. 이 시기에는 로마에서도 다른 축일과 마찬가지로 성 베드로대성당에서 단 한 번의 미사가 봉헌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밤 미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성탄동굴에서 드리던 미사를 모방하여 로마의 성모 마리아대성당에서도 성탄 밤중에 미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드리는 성탄 밤미사의 기원이 됩니다.

물론 성탄대축일미사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의무대축일입니다. 그러나 성탄 밤미사나 낮미사중 어느 하나만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둘 다 참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기쁜 축일에 나의 시간, 노력, 정성을 기꺼이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 교중미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미사에물을 받지 않고 자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를 말합니다. 교중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를 가진 사제가 당일 해당 본당에서 봉헌해야 합니다. 또한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 본당의 보좌신부, 신학교 교수신부, 군종사제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포교지방의 특전을 얻어 본당사목에 종사하는 본당신부들은 일 년 중 11번의 대축일에만 미사에물을 없이 교중미사를 봉헌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교중미사를 드리는 날 혹시 미사에물을 받고 다른 미사를 드렸다면 그 미사에물은 전부 교구장이 정한 목적에 회사해야 합니다. <◆자료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